

종합

남구청사 이전 가속도

匾, 자산관리공사와 위탁개발 양해각서 ... 주민의견수렴 나서

광주시 남구가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위탁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주민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청사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구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종합청사 위탁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민공청회도 열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종합청사 예정지인 옛 화니백화점 건물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예상 사업비 약 250억원을 전역 자산공사가 부담하고 건물 5개 층에 대한 20년간 임대권을 갖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자산공사가 임대료 수익을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남구청은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옛 화니백화점 건물 지하 1층부터 6층, 남구청 및 의회청사로 쓰이는 지상 1층에서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 6층부터 9층까지는 상업시설로 임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용도는 일반 사무실부터 식당, 헬스장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대하기로 한 5개 층이 어떻게 사용될지 구

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특별히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사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종합청사 이전 주민공청회'가 봉선동 남구종합문화회솔회관에서 열렸다. 주민공청회에서는 남구의원과 남구 관계자, 남구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이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 대다수는 청사 이전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남구 관절질환센터 기공 24일 광주시 남구 빗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전남대병원 관절전문질환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류머티즘과 퇴행성관절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관절전문질환센터는 3만1735㎡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180병상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12년 9월 개원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템플스테이 관광상품화 인기 올해 18곳 2만여명 참가

산사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Temple Stay)가 전남의 인기 체험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 사찰 중 템플스테이를 운영한 18개 사찰의 참가자가 외국인 1387명을 포함해 모두 2만7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다, 전국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109개 사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이 13개 사찰에 1만8414명이 참가해 뒤를 이었고 강원도는 10개 사찰에 1만7922명이 참가했다. 또, 도내 사찰 중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가장 많은 절은 해남 미황사로 10월 말까지 7889명을 유치했다.

미황사는 산사체험 프로그램 외에 어린이 한문학당과 청소년 문화학교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면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송광사가 5650명이 다녀가 뒤를 이었고 해남 대흥사(4965명), 구례 화엄사(3927명), 순천 선암사(3459명), 나주 삼향사(2129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한 템플스테이 사찰은 나주 삼향사로 367명이 찾았으며 순천 송광사(259명), 구례 화엄사(203명) 등이었다.

삼향사의 경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사찰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희생자 추도·北 규탄

강운태시장 장서정우 하사 조문 유가족 위로

박준영지사 訪日·광주경찰청 체육 행사 취소

北, 연평도 포격

광주와 전남에서도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고 희생 장병을 추도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성명을 내고 "민간인 주거지역에 의도적으로 무차별 포 사격을 가한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광주시는 "장병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한편"이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6·25 전쟁 이후 한차례도 없었던 심각한 사태로 정부가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결행함으로써 물살튼없는 대한민국의 안보능력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반복적인 도발행위를 확실히 끊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조국의 영해를 사수하다 전사한 해병대원들을 애도하

고, 특히 광주 출신인 고 서정우(22·광주 남구) 하사의 장례절차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정우 하사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일본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박 지사는 24~26일 일본 사가현을 우호교류 협력차 방문하고 관광·통상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방문을 취소했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이날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 예정이던 전·의경 한마음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한마음 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 소속 전·의경을 위회하는 행사지만 북한의 도발에 긴장을 유지해야 하고 희생 장병과



강운태 광주시장이 24일 북한의 포격으로 숨진 고 서정우 하사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그 유가족을 위로한다는 뜻에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전우회 광주시 연합회는 희생 장병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즉시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 하사의 미니홈피에는 전남에 이어 이날도 14만 건의 추모의 글이 오르는 등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특히 네티즌들은 서 하사가 마지막 병장 휴가를 받고 인천으로 나가

려고 연평도 선착장에서 여객선에 탑승하던 중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판단, 부대로 자진 복귀하다 번을 당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 강민기 씨는 "대한민국의 아들, 당신은 진정한 해병입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부모님께서도 힘내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수라장' 연평도 조금씩 수습

밤샘 화재진화·전력복구 ... 비상식량·구호품 속속 도착

23일 북한군의 포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연평도 현지의 상황이 조금씩 수습되고 있다.

24일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50분 미래 해운 소속 화물선을 통해 인천 남항을 출발한 소방 인력 86명과 소방차량 21대가 이날 오전부터 화재 진화와 구조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연평도에서는 전체 임야의 70% 정도가 불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19채, 창고 3채 등 모두 22채의 건물이 불에 탔다. 주택 화재의 경우 대부분 자연 진화됐지만 연료탱크 폭발로 인한 산불은 일부 남아 계속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인력과 장비를 실은 840급 구호품 수송선도 24일

인천남항을 출발, 연평도에 도착했다.

연평도에서는 북한군의 포격으로 전체 820가구 가운데 42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으나 한편 직원 10여명이 밤새 복구 작업을 진행, 현재까지 150가구의 전력 복구를 마쳤다. 한편 측은 나머지 270가구 외에 정전 중인 연평면사무소와 연평파출소 등 관공서의 전력 복구도 24일 중으로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연평도의 피해 복구에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이 명백한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우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상식량과 구호품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인천시와 전국재해구호

협회가 긴급 마련한 구호품 2000상자를 실은 500t급 해경 경비함정이 24일 현지에 도착했으며, 인천적십자사가 지원한 생수 3000병과 컵라면 2000개, 구급상 300개, 빵 500개, 우유 2012개, 응급구호세트 3550개 등도 현지 주민들에게 보급됐다.

웅진군도 이날 오전 행정선과 1590t급 화물선을 이용해 구호 식량과 복구 인력·장비 등을 수송했으며, 해양함정 1척도 라면 2000박스와 난로 30개, 복구 인력 45명 등을 싣고 연평도에 도착했다.

인천시와 웅진군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평도 주민들의 '피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해병대 사령부는 연평도에서 철수를 희망

하는 주민들과 휴가복귀 군인들을 위한 해상수송을 시작했다. 휴가복귀 명령을 받은 연평부대 소속 장병들을 태운 군함 1척은 24일 이날 오전 10시 54분 인천을 출항했다. 함정은 휴가복귀 장병들을 연평도에 내려준 뒤, 철수를 희망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인천으로 옮길 예정이다.

또 백령도 주민들의 경우는 25일 오전 인천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통해 희망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철수시킬 예정이며, 여객선은 해군함정의 호위를 받게 된다.

해경에 따르면 23일 포격 이후부터 24일 현재까지 연평도 주민 750여명이 어선과 해양함정 20여 척을 이용해 인천으로 대피했다. 이들은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한 뒤 연안부두의 한 대행사우내에 임시 수송됐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그게 우리국민 팔자 인것을~

韓成 韓成會館

30년을 이어온 - 日式 韓成會館 이 11월 23일 새로운 모습으로 최신식내부 확장수리하여 임직원 모두가 더욱더 정성과 친절 봉사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0년 11월 일
한성회관 대표 한상 열 拜上
예 | 약 | 문 | 의
062-224-2841~2 · 010-4922-2842

since 1985.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전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강좌

광주18기) 11월 26일(금) 14:00-17:00
광주19기) 11월 27일(토)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생 침구계(3년) 중의계(5년) 졸업증과 중국침구사, 중의사, 추나사 자격취득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총동의회 창립(2010.5.29) CH중국문화원 전문과정 졸업자분들은 연락바랍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 전대점 268-8111

공인중개사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월 1일 주간반 야간반
현재 전과목 강의중(청강한영)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60명

합격 을원한다면 안수강료 절 기값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서구청앞) 361-8111 전대점 (전대타운앞) 268-8111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